

보도시점 2024. 12. 2.(월) 배포 2024. 12. 2.(월)

재외동포청장, 2일간 도쿄서 재일동포와 화합의 장 마련

- 민단 주최 동포 간담회 참석해 동포청 주요 정책 방향 설명
-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관련 동포단체 의견 청취...재외선거 참여도 독려

-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1월 29일, 30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동포 간담회를 열어 재일동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, 민생현장을 둘러 보는 등 동포사회와 소통했다.
- 이 청장은 29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(민단)에서 주최하는 재일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재일동포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고 한일 수교 60주년 계기 재일민단 사업 계획 등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- 이 청장은 한글교육, 동포 뉴스 등 관련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재외동포소통플랫폼 ‘재외동포TV’를 신설하여 재외동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- 또한 “동포사회 결집을 통해 한민족 전체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특히 국내로 유입되는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등 국내 정착 동포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한편 동포청은 2025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SNS 등을 통해 동포 모국 기여 사례를 알리는 ‘이달의 재외동포’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.

- 이 청장은 “모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기여를 한 재외동포를 매달 선정, 국내에 홍보해 우리 동포의 소중함을 재조명하겠다” 고 밝혔다.
- 이 청장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계기,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민단을 비롯한 재일동포 사회가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.
- 민단은 한인회 등과 함께 소통해 여러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한일 수교 60주년을 재일동포사회의 화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.
- 한편, 민단은 동포들의 적극적인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캠페인도 진행했다.
-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재외선거 등록 제도를 설명하고 직접 오프라인 신청 부스를 설치해 현장 등록 신청을 실시했다.
-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“선거 참여는 다른 모습의 조국 발전 기여” 라며 재외선거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.
- 이 청장 역시 재외선거 등록을 통한 선거 참여를 강조하며 재외 동포들의 선거 참여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.
- 이상덕 청장은 다음날 30일, 한인 밀집지역인 도쿄 신오쿠보 민생 현장을 방문해 우리 동포 소상공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인회 등 신정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.
- 특히 재일본도쿄한국인연합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일동포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	책임자	과장	오현영	032-585-3195
		담당자	사무관	안지은	032-585-3199